

구례자연드림 3단지 조성사업 난항

아이쿱 생협 투자협약 중단 통보

“실무적 난맥 사업추진 의지 의문”

구례군 “협의 통해 실마리 찾겠다”

구례군이 2643억원(도군비 437억원 민자 2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구례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트 조성사업’(이하 구례자연드림3단지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구례군과 구례군의회 등에 따르면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이쿱 생협)이 최근 지난 2023년 2월 27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김정희 회장, 김순호 구례군수간에 체결된 투자 협약과 관련된 중단 의사를 밝혔다.

구례자연드림3단지조성사업은 구례군이 아이쿱 생협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산동면 53만 3736㎡(16만1000평) 부지에 2027년까지 향암농식품 제조 공장과 500병상 규모의 치유병원, 휴양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아이쿱 생협 측은 구례군에 보낸 공문에서 “투자 협약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본 클러스트 조성 사업에 대한 ‘구례군의 함양 성분 인증 조례’ 추진 과정 등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실무적 난맥 상황을 볼 때 구례군이 위 사업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추진 업무를 맡은 실무진은 실질적인 추진 의사가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라며 “구례군과 2023년2월에 맺은 구례자연드림 치유 힐링클러스트 조성사업 투자 협약에 따른 이행을 중단하고자 합니다”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순호 구례군수는 “아이쿱이 주장한 함양관계 조례는 지난 6월 몇 번의 심의 끝에 의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라며 “중단 의사를 밝혀온 이후 김정희 회장과 면담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는 성사되지 않았고 협의의 통해 사업 추진에 실마리를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이쿱 생협 관계자는 “구례군 함양 조례 제정 과정에서 보여준 구례군 관계자들의 추진 의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함양 조례가 구례군민 모두를 위한 것인데 아이쿱생협만을 위한 것으로 잘못 비추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례군의회 이창호 의원(구례군 나선거구)은 최근 군정 질의를 통해 군수의 대표자 방문 면담 등 보다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산동면 주민 A씨는 “구례군과 아이쿱생협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 진다. 1, 2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듯 3단지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구례군 함양성분·향양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조례’는 구례군 조례 제 2602호로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구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함양성분과 향양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제정 과정에서 재의를 거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편, 구례군은 2027년 12월 완공 목표로 지역개발구역지정 용역을 착수하는 등 제반 행정 사항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례군은 치유단지 병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1000여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남열해안 경관과 남열해수욕장.

고흥군 ‘SRT 어워드’ 국내 최고 여행지 대상

고흥군이 SRT 매거진에서 발표한 ‘2024년 SRT 어워드’에서 국내 최고의 여행지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고흥군에 따르면 SRT 매거진 구독자 1만 2060명의 설문조사, 여행작가와 여행기자 등 전문가 평가, 에디터 평점, 방문 관광객 데이터베이스 분석,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편의성 평가를 거쳐 2024년 SRT 어워드 국내 최고의 여행지 10개 도시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SRT 어워드 ‘내년이 기대되는 2024년 방문 도시’로 고흥이 선정된 데 이어, 1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

군은 지난 SRT 매거진 10월호를 통해 ‘유자

부터 우주까지, 고흥의 바다’라는 타이틀로 11월 유자토피아 제4회 고흥유자축제, 나로우주센터와 누리호, 녹동항 드론쇼와 장어거리,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등을 소개하면서 SRT 이용객과 SRT 매거진 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SRT 어워드 대상 수상은 고흥이 전국의 SRT 매거진 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여행전문가들에게도 사랑받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흥관광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이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순천시 원도심 일대 문화산업 기지화 시동 빈 건물 18일까지 모집

순천의 원도심 문화산업 기지화 사업이 힘찬 시동을 걸었다.

순천시가 원도심을 에니메이션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동 일대의 빈 건물을 모집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 콘텐츠 기업을 집중화시켜 낙후된 원도심을 문화산업으로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구역 내 빈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료 희망하는 건축주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순천시 콘텐츠정책과에서 신청받기로 했다.

모집대상 건물은 건축법상 사무실·매장·단기 숙박 용도에 적합한 건물이며, 선정된 건물은 에니·웹툰·캐릭터 등 콘텐츠 창작 및 제작기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선정된 건물은 입주할 기업의 규모와 선호도를 반영하여 매칭되며, 상생 협약 및 임대차계약 이후 시에서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 에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달 18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국가정원과 원도심 일원에 에니메이션, 웹툰 기업을 유치해 도시 전체를 문화산업 기지로 만드는 순천시 역점 사업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미디어시가 지난달 24일 미디어시 델라웨어 카운티 법원 광장에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보성군, 미국 미디어시와 우호교류 협약

서재필 박사 정진 함께 계승

보성군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미디어시와 지난달 24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미디어시 델라웨어 카운티 법원 광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박 맥마흔 미디어시장·Dr. 모니카 테일러 델라웨어 카운티 의장·서재필기념재단 최정수 회장을 비롯해 펜실베이니아주 상·하원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관광, 문화·예술, 교육, 경제, 정원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필립 제이슨(서재필) 박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사업을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보성군 출신의 서재필 박사와 미디어시에 있는 서재필기념재단 간의 깊은 역사·문화적 인연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또한, 양 도시의 문화유산을 연결하며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협약은 서재필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면서 “이를 통해 두 지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여수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다음달까지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여수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갖는다.

여수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3035건 8600여만원이며, 이 중 88.6%(2692건)가 5만원 이하다. 지방세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매각

하는 경우 발생하며, 납세자의 착오 신고, 법령 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했을 때도 발생한다.

환급금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문자(061-659-3530) 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금 청구 기간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세정팀(061-659-35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자원순환단지 후보지 2곳 주민 열람

타당성 조사과정·결과 등 공개

광양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사업의 입지 후보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광양시는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입지후보지는 제9차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2곳이 선정됐다. 1순위(최적부지)는 광양읍 죽림리 산

132-2번지 일원, 2순위(대안부지)는 광양읍 죽림리 산122-7번지 일원이다.

이번 사업의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의 개요 등 관련 자료는 19일까지 공람되며, 현장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광양시청 자원순환과와 광양읍사무소 주민과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자료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은 12월 5일까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